

해외출장복명서

2015년 8월 7일

국제산업협력실 강지연 연구원

1. 출장 개요

- 출장자: 국제산업협력실 강지연 연구원
- 출장지역: 중국 칭다오, 상하이, 청두
- 출장기간: 2015년 7월 26일 ~ 8월 1일 (6박 7일)
- 출장목적: 중국 주요 도시별 투자 환경 조사(과제명: 전략지역 투자 여건 종합비교 분석조사)
- 출장일정

일시	지역	일정
7.26(일)	인천→칭다오	OZ319(1h25)
7.27(월)	칭다오-기계장비 (고성호 과장)	칭다오 국제투자협력촉진국
		칭다오 서해안신구 초상국 YG-1(엔트밀업체)
7.28(화)	칭다오→상하이	중국국제항공 CA8743 (1h35)
	상하이-IT (강민주 과장)	장장과학기술원 재상해·화동 한국IT기업협의회
7.29(수)		
	상하이시외국투자촉진중심	
7.30(목)	상하이→청두	동방항공 MU5405 (3h25)
	청두-자동차 (이대용 과장)	청두 무역관
청두 투자촉진위원회		
청두 경제기술개발구(龍泉驛區) 포스코(청두)자동차부품제조유한공사		
8.1(토)	청두→인천	OZ329(3h30)

2. 면담 내용

※ 면담내용은 용역과제에 포함시켜야 하는 사유로 출장복명서에는 면담자 및 간략한 개황만 서술함.

(1) 칭다오

1) 칭다오시 국제투자협력촉진국(国际投资合作促进局)

- 면담자: Zhang Jian Jun(张建军) 국장, Xu Mei Yu(许梅玉) 부부장
- 면담일시: 2015.7.27.(월) 10:00-11:30
- 면담장소: 青岛市香港中路12号丰合广场C区401室

□ 칭다오시 개황

- 칭다오는 중국의 대표적인 개방형 도시임. 2014년에 칭다오 서해안 신구가 비준됨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연안지역의 주요 경제로 성장할 전망
 - 칭다오의 물류 운송량은 4.8억 톤으로 세계 7위임(렌윈강, 텐진보다 항구 규모가 큼)
 - 한국, 일본 등 동북아국가를 대상으로 하여 국제무역중심 도시로 성장할 계획
- 현재 외국인투자 구성을 보면 홍콩이 1위, 한국이 2위를 차지
 -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 1위를 유지하였으나 최근 들어 홍콩이 부동산 투자를 확대함에 따라 순위가 바뀜.

□ 칭다오시 중점산업

- 칭다오는 가전(하이얼, 하이센스), 자동차(타이어), 식품가공, 철도·고속철, 조선, 해양공정(장비중심), 화학공업 등을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형성
 - 특히 타이어 생산량은 중국 전체의 50%를 차지
 - 서비스업 부문으로는 금융, 물류, 문화산업, 부동산, 중개, 정보화 등 10대 서비스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육성
- 앞으로는 해양 관련 첨단산업 발전에 중점을 둘 계획
 - 칭다오에는 해양 연구부서가 집중되어 있음. 동자커우 항구를 중심으로 조선, 수리, 해상운반 등에 주력
 - 특히 2014년에 비준된 서해안 신구를 중심으로 첨단 조선산업을 발전
- 이 밖에 첨단산업은 국가급인 고신(高新)기술개발구에서 전면적으로 육성

2) 칭다오 서해안신구(西海岸新区) 초상국

- 면담자: Ding Li Chen(丁立晨) 부국장, Liang Qing Yu(梁庆玉)
- 면담일시: 2015.7.27.(월) 14:00-15:30
- 면담장소: 青岛市黄岛区长江中路369号

□ 서해안 신구 개황

- 2014년 6월 3일 중국의 9번째 신구로 비준되었으며 상하이 푸둥신

구, 텐진 빈하이신구에 이어 3번째로 경제총량이 큼.

- 서해안 신구에는 칭다오 경제기술개발구, 황다오 전만보세항구, 칭다오 서해안 수출가공구, 중-독일 생태원, 칭다오 신기술산업개발시험구 등 5개의 국가급 개발구를 포함
- 서해안 신구에는 3만여 개의 기업들이 입주해 있으며 그 중 외자기업이 1,500개임. 특히 글로벌 500대기업 중 80개가 진출
- 서해안 신구는 교통인프라가 비교적 잘 갖춰짐.
 - 항구: 신구 동북쪽으로 청도항으로 불리는 전만항과 남쪽의 동가구항을 보유. 두 항구의 총 물동량은 7억 톤을 상회하며 130개 국가와 지역의 450개 항구와 거래
 - 철도: 칭다오-렌윈강-상하이를 잇는 고속철
 - 도로: 칭란(칭다오-란저우) 고속도로
 - 항공: 칭다오 리우팅 국제공항은 13개 지역, 95개 노선을 보유하고 있으며, 현재 건설중인 신공항은 베이징공항과 비슷한 규모로 연간 6,000~8,000만 명이 이용 가능
 - 지하철·경전철: 2017년에 완공되는 10개 노선 중 6개 노선이 서해안 신구가 있는 황도를 지남.

□ 서해안 신구 중점산업

- 항공물류, 조선해양, 가전, 자동차, 기계장비, 석유화학 등 6대 기간산업을 바탕으로 성장

- 칭다오항(전만항)은 장강 북쪽에서 제일 큰 항구임. 2014년 화물 물동량은 4.8억 톤, 컨테이너 물동량은 1,658TEU로 세계 7대 규모 임.
- 중국 4대 해양 공정기지 및 주요 선박수리, 제조 기지 중 하나로 북선중공업, 무선중공업, 중선중공업 등이 입주. 2014년 조선해양 분야의 공업 총생산액은 259.3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0.6% 확대되는 등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유지
- 가전: 하이얼, 하이신, 하이룽, AUCMA, 마쓰시타 전자, RECHI, 대만의 태코전기 등 40여 개의 주요 가전기업이 입주하였으며 중국 북방지역에서 가장 큰 전자 생산 기지임.
- 자동차: 중국 북방지역에서 가장 큰 미니 카 생산기지로 SGMW 미니벤 차량, 후쿠다 리브즈 국제중공업, KOTALI 중공업, 칭다오 CIMC 특수 차량, 오령연발 유한회사 및 오순 자동차 등 기업들이 입주하여 승용차, 특수차량, 자동차 부품, 공정기계의 산업 체인을 형성. 현재 완성차 및 부품협력업체는 50개에 가까우며 연간 55만대의 자동차와 엔진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는 갖춤.
- 기계장비: 기계장비는 서해안 신구 지역의 전통적인 기간산업. 섬유기계, 포장기계, 고무기계, 광산장비 등을 포함. 동필기계, YG-1, KATSUSHRO 기계 등 설비업체들이 입주
- 석유화학: 중국 석유화학 기지 중 가장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산업 기지임. 1,000만 톤 규모의 칭다오 정제화학공업, GS칼텍스, SIYUAN 화학공업, 산둥LNG 등 80여 개 업체가 입주

3) 한국업체: 와이지원(YG-1, New Century)

- 면담자: 고재현 총경리, 이용군 부총경리

- 면담일시: 2015.7.27.(월) 16:00-17:30
- 면담장소: 칭다오 보세구 뉴욕로 3호

□ 업체 소개

- 1986년에 설립된 톱·호환성 공구 제조업체로 각종 금형이나 자동차, 항공기 동체를 깎는데 쓰이는 엔드밀, 드릴, 탭 등 정밀 절삭공구를 생산
- 엔드밀 분야는 국내 1위, 세계시장 1위임. 엔드밀은 각종 금형과 공작기계에 부착되는 절삭공구임.
- 인천, 안산, 충주 등 국내 6곳과 미국 시카고, 중국 칭다오, 인도 뭘바이 등 해외 7곳에 현지 생산기지를 갖추고 있으며 전세계 75개국에 수출

□ 경영 상황

- 와이지원의 주력 생산품인 절삭공구는 금형, 자동차산업, 건설업 등에 사용되는 기초 부품으로 선행 지수의 역할을 함.
 - 예를 들어 자동차 판매량이 늘어난다면, 가공 단계에서 필요한 절삭공구에 대한 수요가 증가
 - 한편 최근에는 절삭공구에 대한 수요가 높지 않으며,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음.
 - 금년 들어 이익률은 전년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상
- 임가공공장은 금년 상반기까지는 수익이 어려웠으나,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단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

- 2010~11년에는 전 세계 경기가 좋은 편이라 수익구조가 양호(수출이 70%를 차지하며 유럽이 가장 큰 바이어임.)
- 내수용공장은 부지가 10만 제곱미터로 임가공공장 규모(7만)보다 큰 편임. 즉, 확대될 중국내수 수요에 맞춰 생산설비를 갖춰 놓았음.
- 하지만 중국 국내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으로 생산설비 중 일부만 가동 중에 있음.

(2) 상하이

1) 장장 과학기술원(张江高科技园区) 관리위원회 경제발전처

- 면담자: Yan Xue Hua(闫雪花)
- 면담일시: 2015.7.28.(화) 14:00-16:00
- 면담장소: 푸둥신구 장동로 1158호 N.3

장장 과학기술원 개황

- 1992년 7월에 설립된 장장 과학기술원은 첨단 기술, R&D 위주로 구성된 산업단지임. 2015년 4월에는 일부 산업단지가 자유무역시험구로 편입됨.
- 과학기술 산업단지 부문에서 장장 과학기술원은 중국에서 가장 먼저 설립되었으며, 경쟁력은 국내 1~2위 수준임.
- 대규모 외자 R&D센터 집중 입주. 상하이시 전체 외국기업 R&D 센터의 1/3이 입주. 전 세계 500대 기업 중 12개 기업이 창장개발구에 R&D센터 설립. 산학연 일체화 시스템 구축.

- 국내 집적회로 산업의 절반 차지. IC설계기업 밀집
- 특허신청, 첨단기술 프로젝트 추진 가장 많음
- 반도체 분야의 Nvidia, Marvel, Xilinx, Altera 등 글로벌기업, 소프트웨어 분야의 中兴通讯, IBM, EDS, SAP, 그 외 유명 다국적 제약회사들과 왕이, 알리바바, 바이두, 씨트립 등과 중국평안, 은련, 교통은행, 중국은행 등 입주
- 한국 입주 기업은 SK생물의약과학기술(상해)유한공사(화학·의약), 상해삼성메디슨의료기기유한공사(의료용 초음파진단기) 등이 있음.

□ 장장 과학기술원의 중점산업

- 장장 과학기술원은 IT와 바이오산업을 중심으로 함.
 - IT에 종사하는 업체는 154개임. 특히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종사하는 업체가 증가하고 있음.
 - 바이오산업 역사는 이미 20년을 넘음. 투자액이 가장 많은 분야임. 중국 신약 시장에서 1/3은 장장 과학기술원 업체임. 현재 8개의 글로벌 제약기업이 장장 과학기술원에 R&D 센터를 구축함.
- IT와 바이오산업 이외에도 민영항공, 자동차, 환경보호산업 등 신규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

2) 재상해·화동 한국IT기업협의회

- 면담자: 김성진 부회장
- 면담일시: 2015.7.29.(수) 17:00-20:00

- 면담장소: 우중로1100호 현윤빌딩 nexus 상해지사

3) 자딩공업원(嘉定工业区) 관리위원회

- 면담자: Chen Jie(沈杰) 부주임, Liu Jian Guo(刘建国)
- 면담일시: 2015.7.29.(수) 10:00-12:00
- 면담장소: 자딩공업구 후이위안로 200호

□ 자딩공업원 개황

- 자딩공업원은 1992년에 설립되었으며 상하이에서 푸둥신구 다음으로 GDP가 높은 산업단지임.
- 외자기업은 일본, 대만업체 중심으로 구성됨
- 한국기업은 약 50여개 입주한 상황
 - AGTM(도장설비 및 페인트, 유리생산설비), 상해유림특종화공유한공사(도장설비·페인트, 유리생산설비), 한화중화(상해)소료유한공사(자동차부품, 전자제품 포장재), 한국캠툴(고무, 플라스틱, 이형제), 썬스타산업봉제기계(주)상해법인(산업용봉제기계)

□ 자딩공업원 산업 현황

- 자동차 산업, 신에너지, 신소재, 바이오, 의료검사 등 부문에 주력
 - 바이오, 의료검사, CT 등 분야는 중국 국가과학원과 협력하여 개발 중에 있음.
- 문화정보 분야의 기업도 상당수 진입. 예를 들어 중국에 100여개의 문화정보업체가 있다면, 1/3이 자딩공업원에 입주함

- 물류, 전자상거래에 종사
- 뿐만 아니라 자딩공업원은 국가급 광고기지임
- 향후 통신, SW, 헬스케어, 미용, 화장품, 중의약 분야에 경쟁력을 더욱 제고할 예정

4) 상하이시 외국투자촉진중심(外国投资促进中心) 아시아-아프리카부

- 면담자: Zhao Yong Qiang(赵永强) 부부장, Hu Heng(胡恒) 신식부 부부장
- 면담일시: 2015.7.29.(수) 14:00-16:00
- 면담장소: 러우산관로 83호 신흥차오중심빌딩 15층

□ 최근 상하이의 투자환경

- 2013년 자유무역시범구(FTZ) 설립 이후 상하이의 투자 개방도가 더욱 향상됨에 따라 서비스업, 금융업, 물류 등 부문의 발전이 확대될 것
- 기업 입장에서 상하이는 중국시장에 진출하는 교두보임.
 - 상하이는 화물의 집산지 역할을 하며, 이는 해외기업들이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긴 풍토
 - 기업들은 금융, 은행과 같은 정보 교류를 할 플랫폼이 필요한데 상하이는 바로 중국의 정보 중심임.
- 소비수준이 제고됨에 따라 소비제품, 헬스케어, 의료에 대한 수요가 크게 확대

- 일본, 한국, 대만, EU 등 헬스케어 제품들이 진출
- 상하이의 외자 우대정책은 토지, 세금 등 비용요소 측면에서는 지속적으로 축소될 것이나 금융적 지원, 높은 수준의 인재공급 등 질적인 측면에서 지원이 확대
- 예를 들어 상하이에 본부, R&D 센터를 설립할 경우 상하이시 정부에서 백만 위안, 오천만 위안 등 실질적인 장려금을 제공

(3) 청두

1) 청두 투자촉진위원회(投资促进委员会)

- 면담자: 리첸리(李群俐) 부처장, 장징윈(张婧雯)
- 면담일시: 2015.7.31.(금) 10:00-11:30
- 면담장소: 고신구 추진로 68호 C동

□ 청두시 중점산업 및 산업정책

- 청두시는 전자정보, 자동차, 항공우주 산업을 중점으로 둔
 - 전자정보: 전 세계 50% 노트북 칩을 생산, 전 세계 66% 아이패드를 생산, 전 세계 40% PC를 청두와 충칭에서 생산
 - 자동차: 청두와 충칭의 자동차 생산량은 350만 대로 이는 중국 자동차 시장의 약 15%를 차지
 - 항공우주: 중국 항공우주 산업의 중요한 도시
- 청두시는 첨단제조업, 현대서비스업 발전을 중심으로 하여 산업정

책을 수립

- 첨단제조업: ① 전자정보, 철도, 자동차, 석유화학, ② 항공우주, 바이오의약, 신에너지, 신소재, 친환경에너지, ③ 야금, 전자재, 식품, 경공업
- 현대서비스업: ① 현대금융, 현대물류, 과학기술 서비스, 전자상거래, 실버산업 및 헬스케어, ② 상업무역, 비즈니스 서비스, 관광, 회의전시, 문화

2) 포스코(청두)자동차부품제조 유한공사

- 면담자: 조태현 총경리, 허철 부장
- 면담일시: 2015.7.31.(금) 14:00-15:30
- 면담장소: 룡천이구 청룡대도 2단 1666호 과학기술산업 인큐베이션단지 A동 1-2

경영상황

- 중국 내수시장 확대를 위해 최근 진출하였으며, 현재 공장설립과 법인설립을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 생산 예정
- 협력업체는 주로 장춘 폭스바겐, 광주기차, 무한동풍기차 등인 외자 완성차업체임.
- 자동차부품회사로 완성차업체가 진출하는 지역을 따라 이동

경영 애로사항

- 청두시는 중국 서부의 내륙지역으로 인프라설비가 상당히 미비

- 부지만 조성되어 있고, 도로 등 기초설비가 부재한 상황
- 그나마 자동차산업은 청두시 육성산업으로 협조가 적극적인 상황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시스템 등은 연해지역(강소성)과 비교할 때 상당히 부족한 상황

3) 청두 경제기술개발구 자동차산업투자국, 투자촉진위원회

- 면담자: Liang Long(梁龙) 부국장, Chen Qing(陈庆) 부주임, Zhou Li Yun(周礼云) 부국장
- 면담일시: 2015.7.31.(금) 16:00-17:30
- 면담장소: 청두 경제기술개발구(룽촨이) 싱광중로

□ 청두 경제기술개발구 투자 환경

○ 2020년까지 연간 300만 대 생산을 목표

- 탕량즈(唐良智) 현 청두시장은 중국의 대표적인 자동차도시인 무한에서 시장을 한 경험이 있으며, 이를 바탕으로 청두시를 또 다른 대표 자동차도시로 육성하려고 함.

○ 청두 경제기술개발구는 자동차개발구로 소개할 정도로 자동차산업에 중점을 둬.

○ 외자에 대한 우대혜택

- 토지보장: 우수 기업이 진출할 경우, 개발구 내의 토지 공급이 충분치 않지만 제공하도록 노력(최근 포스코자동차부품제조 유한공사가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토지를 확보)
- 자금보조: 개발구에는 물류반이 별도로 있어 경우에 따라 100만,

50만 위안의 금융지원을 제공(월마트에 100만 위안 지원)

- 건설: 사무실 임대와 원활하도록 적극 협조하고, 공장 건설이 연기되지 않도록 노력.